

사재 김정국 시에 나타난 학문관과 자상한 스승의 면모*

成塘濟**

I. 문제 제기	III. 학문 권면시에 나타난 자상한 스승의 면모
II. 사재 김정국의 학문관	IV. 맺음말

• 국문초록

본 논문은 思齋 金正國이 조선 전기에 후학 양성의 일익을 담당한 훌륭한 스승이라는 사실에 주목하여, 그의 학문관과 자상한 스승의 면모를 고찰한 글이다. 사재 선생은 中宗 때 王政을 보필하고 백성들에게 善政을 베푼 유능한 관료 문인이다. 그는 황해도 관찰사로 있을 때 수십 명의 학생을 뽑아 직접 가르치기도 하고, 자신이 만든 學舍으로 儒生들을 면려하고 또 詩로 校生들에게 학업을 권면하는 등 교육에 높은 열정을 기울였다. 훌륭한 인재를 만들어 좋은 사회와 훌륭한 나라를 이루려는 높은 뜻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 후 고양군 망동리에 은거할 때도 18년 동안 오직 제자들을 가르치는 일로 즐거움을 삼았다. 이때도 그는 정성을 다해 제자들을 가르쳤는데, 시의 효용성을 중시하여 시를 통해 여러 제자들에게 학문을 권면하였다. 이에 본고는 사재 선생이 교생과 제자들에게 학문을 권면하기 위해 지은 시를 분석하여, 학문관 및 시의 미적 특징과 함께 자상한 스승의 면모를 살펴본 것이다.

주제어 : 김정국, 망동리, 육무당, 스승, 교생, 제자

* 이 논문은 2019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9S1A5B5A07107340).

** 전 성균관대학교 어문학부 강사

I. 문제 제기

교육은 백년대계라는 말처럼 후학 양성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매우 중요한 일이다. 올바른 인간이 되게 하고 나라를 이끌어갈 인재를 기르는 일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훌륭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높은 도덕과 뛰어난 학식을 지닌 훌륭한 스승이 있어야 한다.

어느 시대나 그러했듯이 조선 전기에도 훌륭한 스승이 많이 있었다. 그 중 한 분을 꼽는다면, 中宗 때 나라에 충성을 다하고 백성들에게 선정을 베푼 思齋 金正國(1485~1541) 선생이 바로 그이다. 사재 선생은 중종 때 문과에 장원급제하여 청·요직을 두루 역임하며 王政을 보필했고, 황해도·전라도·경상도 관찰사로 부임하여 헌신적으로 善政을 베푼 관료 문인이다.

사재 선생은 황해도 관찰사로 있을 때 수십 명의 학생을 뽑아 직접 가르치기도 하고, 學塾을 만들어 校生들을 권면하였다. 그리고 황해도 관찰사에서 물러나 高陽郡 芒洞里에 은거할 때도 근 20년 동안 오직 제자들을 가르치는 일로 즐거움을 삼았다. 당시 고양군 망동리로 배우려는 학도들이 많이 모여들자, 사재 선생은 초가집을 지어 六務堂이란 堂號를 걸고 그곳에서 제자들을 가르쳤는데, 제자들의 글 읽는 소리가 항상 그치지 않았다고 한다. 훗날 사재 선생이 서거하자, 제자들이 다투어 와서 빈소 곁에서 곡하고 아침저녁으로 제전을 올리고 상여가 나간 뒤에야 흠어졌다. 심지어 스승을 위해 3년간 心喪을 행한 제자도 있었다.

망동리에서 수학한 제자로 현재 알려진 사람은 鄭之雲·柳用謙·朴衡·黃彦忠·柳忠良 등이다. 이 중에 정지운은 天命과 人性的 관계를 그림과 글을 통해 설명한 『天命圖說』로 유명하며, 이 『천명도설』은 뒤에 四七論爭의 발단이 되었다. 성리학에 조예가 깊은 사재 선생의 가르침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이다.

한편 사재 선생은 문장과 시에 뛰어나 『思齋撫言』 등 많은 글을 지었고, 380題 520여首의 한시를 창작했다. 한시 중에는 校生과 제자들에게 학문을 권면한 시가 25首 정도가 있다. 이 25수 중에 사재 선생이 심혈을 기울여 지은 7言 80句의 長篇 古詩가 포함되어 있으니, 전체 시에서 학문을 권면한 시가 차지하는 비중은 결코 적지 않다고 하겠다.

이처럼 사재 선생은 조선 전기의 한 훌륭한 스승으로서 후학 양성의 일익을 담당했

고, 시를 통해 제자들에게 학문을 권면하기도 했다. 게다가 사후에는 행실이 점잖고 어질며 덕과 학식이 높은 군자다운 사람으로 일컬어졌다. 이로 볼 때, 사재 선생의 후학 양성에 대해서는 반드시 연구할 필요가 있다. 더구나 지금은 사람들이 인문학의 부재를 부르짖고 돈이면 다된다는 천박한 황금만능주의가 기승을 부리고 있으니, 훌륭한 스승의 올바른 가르침에 대해서는 더욱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사재 선생의 후학 양성에 대해서는 학계에서 주목을 받지 못했다. 그러다가 1997년 최재남의 「金正國의 삶과 시세계」란 논문이 발표되었는데,¹⁾ 이 논문에서는 향촌생활의 형상화라는 점에 초점을 맞추어 4首의 시를 검토하여 사재 선생의 제자들에 대한 면려 내용을 간략히 다루었다. 그 뒤 2017년에 성당제의 「사재 김정국 시의 미의식」이란 논문이 나왔는데,²⁾ 여기서도 미의식을 고찰하면서 2수의 시를 들어 사재 선생의 제자들에 대한 학업 권면을 간략히 언급했을 뿐이다. 그 후 아직까지 사재 선생의 후학 양성에 관한 본격적인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사재 선생이 조선 전기에 후학 양성의 일익을 담당한 훌륭한 스승이었다는 사실에 주목하여, 그의 학업 권면시에 나타난 학문관과 자상한 스승의 면모를 밝혀보고자 한다. 이에 우선 학업 권면시에 나타난 학문관을 간략히 살펴본 다음, 황해도 교생에 대한 권면시와 망동리 제자에 대한 권면시를 검토하여, 시의 미적 특징과 함께 자상한 스승의 면모를 살펴볼 것이다. 학문관을 살펴보는 까닭은 작품 성향과 깊은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이 연구가 이루어지면, 사재 선생의 문학 전반 및 조선 전기 교육사를 연구하는 데 일조할 것이며, 학생을 지도하는 교육자들에게도 다소 도움이 될 것이다.

II. 사재 김정국의 학문관

사재 선생은 經學에 정통하고 靑陽縣監을 지낸 李世靖과 이모부인 禮賓寺正을

1) 崔載南, 「金正國의 삶과 시세계」, 『한국한시작가연구』 4, 한국한시학회, 1999, 269~302면.

2) 성당제, 「思齋 金正國 詩의 美意識」, 『東國史學』 63, 동국역사문화연구소, 2017, 89~126면.

지낸 趙有亨에게 가르침을 받았다. 그리고 寒暄堂 金宏弼(1454~1504)에게도 수학하였는데, 한훤당 선생은 조선 전기의 유명한 문신·학자로 鄭夢周로부터 吉再·金叔滋·金宗直으로 이어지는 道學의 정통을 계승한 인물이다. 그러므로 사재 선생도 도학의 정통을 계승했음을 알 수 있다.

주지하듯 도학은 理學 또는 性理學으로 일컬어지며 조선조의 통치이념이 되었고, 退溪 李滉(1501~1570)과 栗谷 李珣(1536~1584)에 이르러 조선 성리학으로 체계화되었다. 사재 선생은 퇴계 선생보다 16년 전에 태어나 1541년에 졸서하였다. 그러므로 사재 선생이 살았던 시기는 조선 성리학이 체계화되기 바로 전 理氣心性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될 즈음에 해당한다.

慕齋 金安國(1478~1543)은 그 아우 사재 선생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다.

아우는 타고난 자품이 남다른 데다, 젊었을 때 김굉필 선생에게 수학하여 師友의 淵源이 있었다. 학문이 월등히 뛰어나 세속의 유자들과 크게 달랐다. 글을 잘 지어 풍부하고 유창하였으며, 늦게 시를 배웠으나 붓을 잡으면 바로 지었다.³⁾

사재 선생이 김굉필 선생에게 수학하여 사우의 연원이 있다고 하였으니, 정몽주로부터 김굉필로 이어지는 학통을 이어받았다는 뜻이다. ‘학문이 월등히 뛰어났다’는 사실은 사재 선생이 문과에 장원급제한 데다 賜暇讀書를 하고 經筵官을 역임한 데서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글과 시를 잘 지었다고 하였으니, 사재 선생은 이미 스승 될 자격을 구비했다고 하겠다.

도학의 정통을 계승한 사재 선생 역시 성리학에 조예가 깊어, 《性理大全》을 가르칠 만한 사람으로 선발되고⁴⁾ 《性理大全書節要》를 편찬하기도 했다. 또한 성리학적인 내용과 용어로 읊은 시도 있고, 儒學을 권장하려면 사찰을 헐기보다 道學을 드러내 밝혀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며,⁵⁾ 승려를 儒家로 유도하고자 성리학의 개념을 말하기도

3) 『思齋集』 권4, 「思齋先生墓誌」, “吾弟生稟既異. 少受學金先生宏弼, 有師友淵源, 學問超詣, 絕於俗儒. 善屬文, 瞻敏敷暢, 晚學詩, 能操筆立就.”

4) 『조선왕조실록』 중종 34권, 13년(1518) 11월 6일(임인) 1번째 기사.

5) 『思齋集』 권1, 「유생 변위가 상소하여 사찰을 헐어 학교를 증수할 것을 아뢰다. [有儒邊偉上書, 請毀寺刹, 增修學校.]”, “승려를 처벌하고 탐을 부수는 건 부질없는 일ियो. 다만 道學을 드러내

했다.⁶⁾ 이러한 사실은 사재 선생이 성리학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고 학문관도 성리학과 깊은 관련이 있음을 말해준다.

사재 선생은 황해도 관찰사로 있을 때 校生에게 아래와 같은 시를 지어주었다. 校生은 각 고을의 鄉校에 등록된 학생을 이른다.

배우지 않은 사람을 한번 보거나
갓 쓰고 신을 신었지만 짐승이라네.
모름지기 聖賢의 책을 가져다가
부지런히 창 앞에서 읽어야 하리라.
試觀不學人, 冠履而禽犢.
須將聖賢書, 勤向窓前讀.⁷⁾

사람이 배우지 않으면 짐승이나 다름없으니, 짐승을 면하려면 聖賢들이 지은 經傳과 책을 부지런히 읽어야 한다고 권면하고 있다. 경전을 공부하여 성현의 가르침을 따라야 인간다운 인간이 된다는 뜻이니, 인간다운 인간이 되기 위해 학문을 해야 한다는 학문관이다.

다음은 제자 박형에게 학문을 권면하기 위해 지어준 시이다.

고요함 속의 한 근본에 天理가 담겨 있으니
마음이 움직이려는 때에 임하여 가는 바를 삼가라.
이와 같이 공부하여 지극한 곳으로 돌아가면
곤궁했던 顏回·孟子나 영달한 周公·伊尹이 되리라.
靜中一本涵天理, 動去臨幾慎所之
恁地着功歸極處, 窮爲顏孟達周伊⁸⁾

1구의 “고요함 속의 한 근본”⁹⁾이란 ‘아직 사물과 접촉하지 않아 감정과 욕심이

밝히는 데 달려 있을 뿐이래오. [誅僧毀塔徒爲爾, 只在脩明道學中.]

6) 『思齋集』 권1, 詩, 「余一日坐芒洞之恩休亭, 有衲守眉者杖錫來拜于庭 …… 余惟人之生也, 受天地之理以爲性, 稟天地之氣以爲形. 受其理者, 聖愚皆同, 稟其氣者, 不能無清濁高下之異 ……」

7) 『思齋集』 권1, 詩, 「海州刊印小學, 延安校生爲來求得, 并書卷尾與之。」

8) 『思齋集』 권1, 詩, 「次朴衡韻」

생기기 이전의 고요한 상태에 있는 性¹⁰⁾을 이른다. “天理”는 人欲과 상대적으로 쓰이는¹¹⁾ 성리학의 기본 개념으로, 天理는 性에서 나와 공정하고 바른 것을 이르고, 人欲은 形體에서 나와 사사롭고 치우친 것을 이른다. 따라서 제1구는 ‘고요한 상태의 性 속에 공정하고 바른 천리가 담겨 있으니’의 뜻이다. 2구는 ‘사물에 접촉하여 마음이 움직이려 할 때, 性에서 나온 天理로 마음이 가는지 形體에서 나온 人欲으로 가는 지를 잘 살펴, 인욕이 싹트는 것을 막고 천리를 따르라’는 뜻이다.

3구는 ‘인욕을 막고 천리를 따르는 공부를 열심히 하여 지극한 경지에 오르면’의 뜻이고, 4구는 ‘운수가 안 좋으면 곤궁했던 顏回·孟子 같은 사람이 되거나, 운수가 좋으면 영달했던 周公·伊尹 같은 사람이 된다’는 뜻이다. 안희와 맹지는 曾子·子思와 함께 四聖으로 일컬어지는 聖人들이고, 주공도 聖人으로 일컬어지며, 이윤은 殷나라의 명재상이다.

이처럼 사재 선생은 성리학적 사고에 입각한 시를 지어, 제자에게 마음을 수양하는 공부를 열심히 하여 성인이 되거나 임금을 보필하는 훌륭한 신하가 될 것을 권면했다. 학문의 목표를 성인이나 훌륭한 신하가 되는 데 두어야 한다는 학문관이다.

사재 선생은 다른 시에서 “학문은 의당 체득하는 공부를 해야 하고/ 浮薄한 풍속 바로잡기를 생각해야 한다네.”¹²⁾라고 하여, 학문을 닦아 좋은 사회를 만드는 데 써야 한다는 학문관을 피력하기도 하였다.

이상에서 사재 선생의 학문관을 살펴본바, 그는 도학의 정통을 계승한 학자답게 성리학적인 학문관을 갖고 있었고, 그의 시에서는 ‘인간다운 인간이 되기 위해, 성인이나 훌륭한 신하가 되기 위해,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학문을 해야 한다’는 학문관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자신의 영달과 명예를 위해서가 아닌, 인간답고 훌륭한 사람이 되어 좋은 사회와 나라를 이루기 위해 학문을 닦아야 한다는 학문관이다.

9) 一本萬殊의 ‘一本’가리키는데, 一本은 ‘太極’을 뜻하기도 하고 ‘性’을 뜻하기도 한다. ‘일본만수’는 하나의 근본인 태극에서 만 가지 다른 것이 생겨난다는 뜻이다.

10) 고요한 상태에 있는 性은 『禮記』 『樂記』에 “사람이 태어나 고요한 것은 하늘에서 타고난 性이고, 사물에 감응하여 움직이는 것은 性의 欲이다.[人生而靜, 天之性也. 感於物而動, 性之欲也.]”라고 하였다. 여기서 “性의 欲”은 情을 이른다.

11) 성리학 공부분의 요점인 “인욕을 막고 천리를 보존한다.[遏人欲 存天理]”라는 말이 있는데, 여기서 보듯이 ‘天理’와 ‘人欲’은 성리학에서 상대적인 개념으로 쓰인다.

12) 『思齋集』 권1, 詩, 「吾妹家壻柳君用諶而信 ……」, “學問直着體認功, 念此浮俗思矯揉.”

Ⅲ. 학문 권면시에 나타난 자상한 스승의 면모

사재 선생이 학문을 권면한 시는 시기별 대상별로 구분하면 크게 두 부류로 나뉜다. 하나는 황해도 관찰사로 있을 때 校生들에게 지어준 시이고, 다른 하나는 망동리에서 은거할 때 가르치던 弟子들에게 지어준 시이다. 『思齋集』에 실려 있는 학문 권면시는 총 19題 25首인데, 황해도 관찰사로 있을 때 지은 시가 4제 7수¹³⁾이고, 망동리에서 가르칠 때 지은 시가 15제 18수¹⁴⁾이다. 그리고 15제 18수에 7언 80구의 장편 고시 1수와 아들에게 지어준 시 1수가 포함되어 있다.

1. 校生에 대한 학업 면려의 도타운 모습

중종 13년(34세, 1518) 12월 사재 선생은 황해 감사로 부임하여 1년 동안 선정을 베풀었다. 당시에 그는 『警民編』을 지어 우매한 백성을 깨우쳐주고, 교화가 느슨해지고 학교가 방치된 것을 안타깝게 여겨, 수십 명의 학생을 뽑아 관청 창고의 쌀을 빌려 식사를 제공하며 손수 가르치기도 했다.¹⁵⁾ 또한 學令 24조를 만들어 儒生들을 훈도하니, 황해도의 모든 백성들이 흡족하게 복종하였다고 한다.¹⁶⁾ 뿐만 아니라 校生들에게 학업 권면시를 지어주고, 어떤 유생에게는 『近思錄』책을 주면서 열심히 공부하라는 글을 써주기도 했다.¹⁷⁾ 훌륭한 목민관인 동시에 도타운 스승의 모습이라고

13) 4제 7수는 『思齋集』 권1의 「勸列邑諸校生」 3수, 「入谷山, 有校生講書 ……」 1수, 「海州刊印小學, 延安校生爲來求得 ……」 2수, 「有儒邊偉上書, 請毀寺刹 ……」 1수를 이룬다.

14) 15제 18수는 『思齋集』 권1의 「勸受業生鄭之雲」 1수, 「每過書堂, 不聞讀書聲 ……」 1수, 「書示書堂諸子」 1수, 「次朴衡韻」 2수, 「壬辰七月, 書堂諸生移寓大慈寺 ……」 2수, 「吾妹家瑯柳君用謙而信. 嘗與鄭之雲·朴衡 ……」(7言 80句) 1수, 「甲午立春日, 書示書堂諸子」 1수, 「鄭之雲將游學領宮求一言, 取敬勤二字, 走筆書贈」 1수, 「前詩勸戒盡矣, 恐爲芻狗置而不省 ……」 1수, 「次柳秀才公竹韻」 2수와, 『思齋集』 권2의 「書與鄭詔」 1수, 「書贈安先達鴻十九登第」 1수, 「手書朱文公戒子書, 與小子繼趙」 1수, 「又書寄寓讀兩生」 1수, 「寄贈鄭·朴二子」 1수를 이룬다.

15) 『思齋集』 권3, 「贈言」, “내가 외람되어 황해도 관찰사에 임명되어 …… 교화가 해이되고 학교가 방치된 것을 남몰래 안타까워하여, 海州에서 학도 수십 명을 뽑아 모아서 관청 창고에 있는 쌀을 빌려 먹이고, 나의 소견을 가르치면서 그들이 성취하기를 기대하였다. 徐謬受陝寄 …… 竊憫其教弛學廢, 選聚學徒十數於海陽, 假公廩以食, 教以不肖所見, 以冀成就.”

16) 『思齋集』 권4, 「思齋先生墓誌」, “又爲學令二十四條, 以勉訓學者, 一道泠然化服.”

하겠다.

학령 24조는 儒生들에게 학업을 면려하기 위해 만든 것이니, 권면시를 살펴보기에 앞서 학령을 통해 사재 선생의 학업 권면의 실상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학령 24조는 8조씩 세 부분으로 나뉘어 있는데, 첫 부분의 8조만 소개하면 아래와 같다.

동이 틀 무렵 반드시 신속하게 의관을 정제한다.
 신속히 의관을 정제하면 반드시 단정하게 앉는다.
 단정하게 앉으면 반드시 책을 읽는다.
 책을 읽을 때는 반드시 암송한다.
 암송하고 나면 반드시 깊이 사색한다.
 깊이 사색하고 나면 반드시 명확하게 변별한다.
 명확하게 변별하면 반드시 몸으로 체득한다.
 몸으로 체득하면 반드시 독실하게 실천한다.¹⁸⁾

학업에 임하는 태도, 공부하는 방법, 체득한 지식을 반드시 실천해야 한다는 조항들이 나열되어 있다. 이 8조만 보더라도, 사재 선생이 젊어서 치밀하게 학문을 닦았고 또 교육에 열정을 기울여 학업을 면려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한편 이 학령은 조선 전기 지방 향교에서 행했던 교육 실상의 한 단면을 살필 수 있는 귀중한 자료이기도 하다.

다음은 사재 선생이 황해 감사로 있을 때, 황해도 내 여러 고을의 校生들에게 학업을 권면하기 위해 지은 3수의 시 가운데 첫 번째 시이다.

하늘이 이 세상에 백성을 낼 때
 자질을 부여함에 후박이 없다네.

17) 『思齋集』 권3, 「贈言」, “여러 수재들 중에 鄭君을 만나 마침내 『近思錄』 한 짚을 선물로 주었다. 아! 어찌 책만 주겠는가. 모름지기 책상에 이 책을 놓고 항상 손으로 만지고 마음으로 생각하며 …… 자신도 모르게 공부 가 나날이 밝아지고 덕이 나날이 진보할 것이다.[得鄭君軾於群秀之中, 遂將近思錄一帙爲贈. 吁! 豈徒贈哉! 須置此錄於几案間, 常手閱而心惟 …… 自不覺其學日明而德日造矣. 正德己卯秋, 書贈.]”

18) 『思齋集』 권3, 約, 「海州都會儒生約條」, “黎明必齊齋. 齊齋必整坐. 整坐必讀書. 讀書必成誦. 成誦必精思. 精思必明辨. 明辨必體己. 體己必篤行.”

스스로 포기하는 자 어리석게 되니
쫓쫓쫓 혀를 차며 누구를 탓하리오.
皇天生我民, 賦子無薄厚.
自棄者爲愚, 咄咄寧誰咎.¹⁹⁾

하늘은 누구에게나 차별 없이 동등한 자질을 부여했으니, 자신의 학문적 자질을 탓하며 학업을 포기하지 말고 공부하여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말 것을 완곡하게 권면하고 있다. 초학자도 이해하기 쉽도록 꾸밈없이 평이하게 지은 시로, 작자의 따듯하고 부드러운 마음이 느껴지는 작품이다. 다음은 같은 시의 둘째 수와 셋째 수이다.

그대는 조정의 많은 고관들을 보라
절반 이상이 草野에서 일어났다네.
근심할 바는 배우지 않는 것일 뿐
임금께선 부지런히 인재를 부르신다네.
君看滿朝貴, 太半起草萊.
所患不學耳, 聖主勤招來.

吏卒들이 服役하는 데로 달려와서는
매질하며 조금도 사정을 봐주지 않는다네
이른 나이에 부지런히 배우지 않으면
늘그막에 스스로 후회만 할 뿐이라네.
吏卒趨服役, 鞭撻不少貸.
早歲不勤學, 晚來徒自悔.

위의 시에서는, 먼저 조정 고관들의 태반이 궁벽한 시골 출신이라는 사실을 밝혀, 교육 환경을 탓할 필요가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 다음 열심히 공부하여 학식과 능력을 갖추기만 하면 科擧를 통해 얼마든지 조정의 고관이 될 수 있다는 고무적인 말로 마무리했다. 아래의 시에서는, 젊어서 부지런히 공부하지 않으면 吏卒들에게

19) 『思齋集』 권1, 詩, 「勸列邑諸校生」.

매를 맞으며 복역하는 고달픈 신세로 전락하고 늙어서 후회만 할 뿐이라며 끝을 맺었다. 두 시 모두 꾸밈없이 평이하게 지은 작품으로, 따듯하고 부드럽게 학업을 면려하는 스승의 모습을 느낄 수 있다.

교생은 향교에서 유학을 배우고 문묘의 제사를 받드는 일을 맡기 때문에 국가로부터 軍役을 면제받는 혜택을 받았다. 하지만 講書試驗²⁰⁾에 불합격해 향교에서 퇴출되면 軍役이나 軍保²¹⁾에 충당되었다. 때문에 아래의 시에서 힘든 賦役이나 身役に 복역하며 이졸에게 매를 맞는 가혹한 현실을 상기시켜, 교생들에게 부지런히 공부하도록 권면한 것이다.

‘열심히 공부하면 조정의 고관이 될 수 있고, 공부하지 않으면 매를 맞으며 힘든 일을 하다가 늙어서 후회만 한다.’는 글을 써서 권면해도 될 것을, 1首都 아닌 3수의 시를 지어 학업을 권면했다. 한시를 지으려면 아무리 詩作에 능해도 정성과 노력을 들여야 한다. 그런데도 이렇게 굳이 시로 권면한 것은, 사재 선생이 교육에 대한 열정과 자상한 마음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溫柔敦厚의 詩教²²⁾에 입각한 詩觀을 갖고 있었기²³⁾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다시 말해 시는 음악성이 있는 데다 사람을 감동시켜 교화하는 교육적인 효과가 있으므로, 학생들에게 학문을 권면하기에 적합하다는 인식이 있었기 때문이다.

한편 ‘온유돈후’한 품격은 표현이 따뜻하고 부드럽고 돈독하고 경박하지 않으며,²⁴⁾ 평이하고 담박한 시어를 구사하며 화려한 수식이 없는 것이 그 특징이다.²⁵⁾

-
- 20) 講書試驗은 科擧를 볼 때 응시자가 試官 앞에서 經書의 지정한 대목에 대하여 책을 펴 놓고 읽거나 돌아앉아 외면서 그 뜻을 밝혀 설명하는 것을 이른다.
- 21) 軍保는 正兵을 돕기 위하여 둔 助丁을 이르는데, 兵役을 면제 받는 대신 현역병의 農作에 노동력을 제공하였다.
- 22) 『禮記』「經解」에서 공자가 “사람됨이 온화하고 돈후한 것은 시의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이다.(其爲人也溫柔敦厚, 詩教也.”라고 한 말을 가리킨다. 이는 儒家의 전통적인 詩教로 詩歌의 교육적인 효과와 품격을 뜻하는 말로 쓰인다. 詩教에 대해서는 정요일, 『한문학비평론』, 집문당, 1994, 11~23면.
- 23) 성당재, 「사재 김정국 시의 미의식」, 『東國史學』 63, 2017, 93~94면.
- 24) 李敏弘, 『朝鮮朝 詩歌의 理念과 美意識』, 성균관대 출판부, 2000, 181~182면.
- 25) 『虛白堂集』 제8권, 序, 「富林君詩集序」에서 成俔은 李湜 시의 품격을 평하기를 “公(李湜)의 시는 온화하고 평이하며, 평이·담박하여 꾸밈이 없고 자연스러우며,典雅하고 질박하며 너그럽고 온화하여, 과장하거나 지나치게 화려한 태가 없다. 傳에 ‘온유돈후한 것은 시의 교화이다.’라고 하였는데, 공은 아마도 그 시의 교화를 얻은 분일 것이다.(其爲詩, 和易平澹, 典實醞藉, 無浮誇淫艷之態.

그러므로 위의 세 시들이 따뜻하고 부드러운 느낌을 주고, 구사한 시어가 평이하고 담박하며 화려한 꾸밈이 없었던 것이다.

中宗 14년 어느 날, 사재 선생은 관찰사로서 谷山郡에 들어가 교생에게 아래와 같은 시를 지어주었다.

「곡산군에 들어가 어떤 교생에게 강서시험을 보이는데, 句讀도 이해하지 못하였다. 그러므로 軍保로 정하도록 명을 내렸다가 다시 정지시키고 권면하는 시를 지어주었다.」

壯年까지 하나도 들은 것 없지만
지나간 일은 바로잡을 수 없다네.
晩學이 어렵다고 말하지 말고
근면하지 못함을 오직 근심하게나.
壯年無一聞, 往者不可諫.
莫謂晩學艱, 不勤唯所患.²⁶⁾

시 제목에 ‘강서시험에 불합격한 교생을 측은히 여겨 다시 공부하게 하고 권면시키지 지어주었다’고 하였으니, 여기서 사재 선생이 인정이 많고 마음이 너그러웠음을 헤아릴 수 있다.

1구의 ‘壯年’은 30세를 이르니,²⁷⁾ ‘장년까지 하나도 들은 것 없다’는 말은 ‘30세가 되도록 배운 것이 하나도 없다’는 뜻이다. 때문에 2구에서 하나도 배우지 않은 것은 이미 지나간 일이므로, 이제 와서 바로잡을 수가 없다고 한 것이다. 그러면 어찌해야 되는가. 3·4구처럼 앞으로는 만학이 힘들다고 말하지 말고 오직 부지런히 공부만 해야 한다는 것이다.

傳曰, 溫柔醇厚, 詩之教也. 公其得詩之教也歟.”라고 하여, ‘온유둔후’한 품격으로 평하였다. 그러므로 온유둔후한 품격은 ‘온화·평이·담박·전아·질박·너그러움·부드러움·자연스러움’이 느껴지고, 과장과 지나치게 화려함과 꾸밈이 없다’는 특징을 알 수 있다.

26) 『思齋集』 권1, 詩: 「入谷山, 有校生講書, 句讀且不解, 命定軍保還止, 書與勸勉.」

27) 『禮記』 「曲禮 上」에 “사람이 나서 10세가 되면 幼라 하니 학업을 익힌다. 20세가 되면 弱이라 하니 冠禮를 한다. 30세가 되면 壯이라 하니 아내를 둔다.[人生十年曰幼, 學. 二十曰弱, 冠. 三十曰壯, 有室.]”라고 하였다.

향교에서 퇴출당할 위기에서 벗어나 다시 공부할 수 있는 데다 권면시까지 받게 되었으니, 이 교생은 필시 무한한 감동을 받고 열심히 공부했을 것이다. 만학의 교생에게 너그러운 마음으로 도탑게 권면한 시로, 典故와 난해한 詩語를 쓰지 않고 꾸밈없이 담박하고 평이하게 지은 온유둔후한 작품이다.

海州에서 『小學』을 인쇄했을 때, 延安의 校生이 찾아와 그 책을 얻기를 요구하여, 사재 선생은 책 말미에 아래와 같은 시를 써주었다.

어린이에게도 가르침이 있었으니
학문을 함은 孝悌부터 시작하였네.
만고토록 몽매한 자들을 깨우치고자
訓示를 매우 밝게 게시하여 놓았네.
孩提已有教, 爲學自孝悌.
萬古啓群蒙, 訓示昭昭揭.²⁸⁾

옛적에 어린이들은 8세에 小學校에 입학하였으므로,²⁹⁾ 1구에서 “어린이에게도 가르침이 있었다”고 한 것이다. 2구에서는 어린이들이 소학교에서 효도와 공경 [孝悌]부터 공부하기 시작하였다³⁰⁾고 하여, 부모님께 효도하고 윗사람을 공경해야 한다는 뜻을 완곡하게 드러냈다. 3·4구에서는 朱子가 몽매한 어린이를 깨우치려고 『소학』을 편찬하여³¹⁾ 그 책에 가르침이 되는 글이 분명하게 실려 있다고 하였다.

주지하듯, 한훤당 김굉필은 평생 『소학』을 공부하며 소학동자로 자처하였다. 사재 선생도 한훤당 선생에게 수학하였으니, 누구보다 『소학』에 대해 잘 알았을 것이다. 때문에 『소학』에 대해 여러 가지 설명을 하는 대신, 이렇게 간략하게 어린이들이

28) 『思齋集』 권1, 詩, 「海州刊印小學, 延安校生爲來求得, 并書卷尾與之。」
29) 朱子, 「大學章句序」, “人生八歲, 則自王公以下至於庶人之子弟, 皆入小學.”
30) 朱子는 『小學』 「小學書題」에서 “옛날에 소학교에서 사람을 가르치되, 물 뿌리고 쓸며 응하고 대답하며 나아가고 물러가는 예절과, 어버이를 사랑하고 어른을 공경하며 스승을 높이고 벗을 친히 하는 방도를 가르쳤다.[古者小學 教人, 以灑掃應對進退之節, 愛親敬長隆師親友之道.]”라고 하였다. 여기의 “어버이를 사랑함[愛親]은 효도를 이른다. 또 주자는 『소학』 「小學題辭」에서 “소학의 교육 방법은, 물 뿌리고 쓸며 응하고 대답하며, 들어와서는 효도하고 나가서는 공경한다.[小學之方, 灑掃應對, 入孝出恭.]”라고 하였다.
31) 宋나라 朱子가 제자인 劉清之를 시켜 『小學』을 편찬하게 하여 1187년에 완성하였다.

소학교에서 孝悌부터 공부했고, 주자가 몽매한 어린아이들을 깨우치고자 『소학』을 편찬했다는 사실을 말하여, 校生에게 『소학』을 열심히 공부하여 효도하고 공경하기를 완곡하게 면려했던 것이다. 이 시 역시 꾸밈없이 평이하고 담박하게 지은 시로, 따듯하고 부드럽고 돈독함이 느껴지는 온유둔후한 품격의 시이다.

효도와 공경은 仁을 행하는 근본이라고 하였다.³²⁾ 『孝經大義』에서 “仁·義·禮·智를 모두 德이라 이르는데, 仁만이 本心의 온전한 德이 된다. 仁은 사랑을 주로 하고, 사랑에는 아버이를 사랑하는 것보다 큰 것이 없으므로 효도가 덕의 지극함이 된다.”라고 하였고, 또 “효도는 五倫의 근본이고 모든 행실의 근원이다. 효도하고서 不仁한 사람이 있지 않고, 효도하고서 不義한 사람이 있지 않으며, 효도하고서 無禮하고 無智하고 無信한 사람이 있지 않다. 이 효도로써 임금을 섬기면 忠이고, 형을 섬기면 悌이고, 백성을 다스리면 愛이고, 어린이를 어루만지면 慈이니, 하나의 효도가 성립되면 온갖 善이 따라 행해진다.”³³⁾라고 하였다. 이처럼 효도는 모든 행실의 근원이 되기 때문에, 옛적에 소학교에서 효도와 공경부터 가르쳤던 것이다.

요즘은 ‘효자하고 결혼하면 고생한다’는 말을 가끔 듣게 된다. 예전에는 최고의 미덕으로 중시되던 효도가 지금은 안타깝게도 부담스러워진 것이다. 효도는 인간의 존엄성과 관련이 깊은 만큼, 효도의 본질을 되새겨 단점은 버리고 장점은 살리는 것이 옳을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사재 선생은 직접 학생들을 가르치고 학령을 만들어 교생들을 권면하는 등 교육에 열정을 기울였다. 또한 교생들에게 시로써 학업을 도맡게 권면하고 효도와 공경을 완곡하게 면려하였다. 강서시험에 불합격한 교생에게 지어준 권면시에서는 사재 선생의 어진 마음을 헤아릴 수 있었다. 아울러 이와 같이 시로 제자들의 마음을 감동시켜 바른 길로 유도한 것은 사재 선생이 유가의 전통적인 시관을 갖고 있었고, 이 시관에 입각하여 지은 학문 권면시는 모두 온유둔후한 품격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32) 『論語』 「學而」, “孝悌也者, 爲仁之本與.”

33) 『孝經大義』 「經」 1章 註釋, “仁義禮智, 雖皆謂之德, 而仁爲本心之全德. 仁主於愛, 愛莫大於愛親.”, “蓋孝者, 五常之本, 百行之源也. 未有孝而不仁者也, 未有孝而不義者也, 未有孝而無禮無智無信者也. 以之事君則忠, 以之事兄則悌, 以之治民則愛, 以之撫幼則慈, 一孝立而萬善從之.”

2. 弟子에 대한 학문 권면의 자상한 면모

중종 14년(1519) 음력 12월, 사재 선생은 기묘사화에 연루되어 황해도 관찰사에서 물러나 고양군 망동리에 은거하게 되었다. 이때 배우러 찾아오는 학생들이 많았으므로 18년 동안 오직 제자들을 가르치는 일로 즐거움을 삼았다.

망동리의 많은 제자들 중 鄭之雲(1509~1561)·柳用諶·朴衡은 처음부터 함께 수석하며 수학하였는데, 이 중에 이름난 사람은 정지운이다. 그는 사재 선생의 수제자로서 제자들을 가르쳤고 『천명도설』로 유명하며, 평생 벼슬하지 않고 處士로 지냈다. 그 외의 제자들은 이렇다 할 행적이 보이지 않는다.

망동리에서 제자들을 가르치는 동안 사재 선생은 권면시를 포함한 330여 수의 시를 지었고, 초학자에게 역사를 가르치기 쉽도록 「歷代承統圖」³⁴⁾를 만들었으며, 문장을 배우는 초학자들을 위해 『文範』³⁵⁾을 편찬하였다. 또한 『성리대전서절요』를 편찬하고, 백성들의 질병 치료에 도움이 되는 『村家救急方』을 편집하기도 했다. 사재 선생의 근면성과 교육에 대한 열정, 제자에 대한 자상한 마음과 백성을 사랑하는 어진 마음을 말해주는 사례들이다.

사재 선생은 망동리에서 제자를 가르칠 때의 상황을 이렇게 적고 있다.

내가 죄에 연루되어 고양의 망동 시골집에 은거할 때, 남쪽 언덕 위에 조그만 초가집을 지어 여러 학생들의 공부하는 장소로 삼았다. 책을 깊어지고 공부하러 오는 학생들이 전후로 계속 이어졌는데, 온 사람은 머물러 있고 떠나는 사람은 가서 마치 여관의 과객과 같았다.³⁶⁾

조그만 초가집을 지어 書堂으로 삼았고, 책을 깊어지고 배우러 찾아오는 학생들이

34) 『思齋集』 권3, 跋, 「歷代承統圖跋文」에서 「역대승통도」는 사재 선생이 중종 27년(1532)에 중국의 역대로 계승된 王統을 도표를 만들고 여기에 우리나라 흥망성쇠의 始末을 간략히 기록한 것이라고 하였다.

35) 『思齋集』 권3, 跋, 「文範序」에서 『文範』은 문장을 배우는 자들이 俗文을 배우는 것을 우러하여 『史記』·『漢書』·『後漢書』에 있는 각 편의 서문을 직접 옮겨 써서 만든 책으로, 초학 후생들을 권면하기 위해 사재 선생이 중종 27년(1532)에 만들었다고 하였다.

36) 『思齋集』 권3, 「六務堂記」, “余坐累退居于高陽芒洞之村舍, 構小茅于南阜之上, 以爲諸生肄業之所. 負笈而來游者前後相繼, 來者居, 去者往, 如逆旅之過客.”

전후로 계속 이어질 정도로 많았다고 하였다. 찾아온 학생이 많았다는 것은 사재 선생의 학식과 덕망, 교육에 대한 열정이 높았음을 방증해준다.

세월이 오래되어 서당으로 쓰던 초가집이 낡아, 제자 유충량이 주도하여 이를 보수 하였다. 이 때 유충량의 요청으로 사재 선생이 堂號를 六務堂이라고 지었다. 육무당의 위치는 현재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마두동 1121번지(정발산)에 있는 思齋亭 일대이다. 사재 선생은 육무당의 ‘六務’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立志는 독실하고 원대하도록 힘써야 하니, 경계할 것은 깊지 못함에 있다.
讀書는 열심히 읽고 오래하도록 힘써야 하니, 경계할 것은 게으름에 있다.
學問은 연구하고 체득하기에 힘써야 하니, 경계할 것은 지나치는 데 있다.
操心은 공평하고 관대하도록 힘써야 하니, 경계할 것은 편벽됨에 있다.
處身은 단속해서 心身을 거두도록 힘써야 하니, 경계할 것은 방종에 있다.
談論은 학문과 품행에 힘써야 하니, 경계할 것은 잡스러운 것에 있다.³⁷⁾

육무의 뜻과 방법, 경계할 점까지 자세히 나열되어 있다. 당시 스승이 학생을 어떻게 지도했고 학생은 어떤 자세로 배움에 임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글이다. 육무의 내용은 바로 오늘날의 학생들도 마땅히 힘써야 할 일들이다. 인문학의 부재를 외치고 인성을 탓하는 사람들이 많은 요즘, 올바른 인간이 되는 필수 요건이기 때문이다.

육무당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던 어느 날, 사재 선생은 제자 정지운에게 처음으로 다음과 같은 시를 지어주었다.

누가 긴 밧줄로 흐르는 세월을 잡아매랴
머리 위의 光陰은 시위 떠난 화살 같다네.
늙어서 이룬 것 없으면 후회해도 소용없어
몸과 이름 함께 없어지고 거친 무덤 되리라.
長繩誰與繫流年，頭上光陰箭脫絃。

37) 『思齋集』 권3, 「六務堂記」, “立志, 務篤實遠大而戒之在浮淺. 讀書, 務勤力積苦而戒之在懈怠. 學問, 務研窮體己而戒之在放過. 操心, 務平正寬和而戒之在偏僻. 處己, 務檢束收斂而戒之在縱肆. 談論, 務文學行義而戒之在庸雜.”

到老無成臆欲噬，身名俱沒幾荒阡。³⁸⁾

세월은 붙잡아낼 수도 없고 화살처럼 빠르게 흘러가니, 늙어서 후회하지 않도록 젊어서 열심히 공부하여 세상에 이름을 남기도록 하라는 내용이다. 제2구의 “머리 위의 光陰”은 ‘머리 위에 떠 있는 해와 달’로서 세월을 이르는 말이다. ‘늙어서 후회하지 않고 죽어서 이름을 남기려면 열심히 공부하라’는 말 대신, 칠언절구 49자의 시로 완곡하게 권면했다. 이 시를 받은 자체만으로도 제자는 감동적이니, 그가 열심히 공부했을 것은 자명한 일이다. 역시 표현이 꾸밈없이 평이하고 담박하며, 제자에 대한 부드럽고 따듯한 마음이 녹아있는 온유둔후한 시이다.

어느 날 사재 선생이 서당을 지나가는데 학생들의 책을 읽는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이에 그는 다음과 같은 시를 지어 학업을 권면했다.

혹시 침잠하여 묵묵히 생각하는 것인가
울타리 가에 늘 독송 소리 들리지 않는구나.
침잠함이 연구하는 일에는 마땅하다만
초학자는 소리 내 읽어 알아야 하느니라.
莫是沈潛默默思，籬邊常未聽唔呶。
沈潛縱合研窮事，初學須從口誦知。³⁹⁾

명령조의 어투가 아니라 “혹시 …… 생각하는 것인가.”, “들리지 않는구나.”와 같은 조심스럽고 부드러운 어조를 구사하고, ‘침잠은 연구에 마땅한 일’이라는 이유를 들어 ‘너희들은 초학자이니 소리 내 읽어야 한다.’고 완곡하고 설득력 있게 타이르고 있다. 작자의 자상한 면모가 잘 느껴지는 온유둔후한 작품이다. 독송을 강조한 것은 현 교육자들의 주장과 부합한다. 작자도 이미 경험을 통해 눈으로 보고 머리로 생각하며 입으로 소리 내 읽어야 학습 효과가 크다는 점을 알았기 때문에 독송을 권면한 것이다.

다음은 서당의 제자들에게 부지런히 공부하기를 권유한 시이다.

38) 『思齋集』 권1, 詩, 「勸受業生鄭之雲」.

39) 『思齋集』 권1, 詩, 「每過書堂，不聞讀書聲，書一絕，以警諸秀才」.

학문 익히는 데는 본래 요체가 있으니
근면과 태만에 따라 堯躋가 된다네.
짧은 시간을 아껴 가벼이 보내지 말라
성인과 범인은 하늘과 땅 차이니라.
爲學功夫自有要，只緣勤怠作堯躋。
分陰慎勿輕拋擲，聖與凡人判壤霄。⁴⁰⁾

학문을 닦는 데는 근면이 중요하며, 촌음을 아껴 부지런히 공부하면 聖인도 될 수 있다는 고무적인 학문 권유이다. 제 2구의 堯躋(요교)는 어질고 덕이 뛰어난 堯임금과 춘추 시대에 큰 도적으로 이름난 莊躋(장교)를 가리킨다. 현격히 대비되는 요임금과 장교를 제시하여, 제자들이 성인이 되는 데 목표를 두고 부지런히 공부하도록 흥기시킨 점이 돋보인다. 孔子는 “시는 意志를 흥기시킬 수 있다.”⁴¹⁾라고 하여 시의 효용성을 언급했다. 이를 배운 사재 선생도 시의 효용성을 중시하여 이렇게 시로 제자들을 분발하도록 권면한 것이다. ‘부지런히 공부하면 너희들도 성인이 될 수 있단다.’라고 말하는 인자한 스승의 모습이 연상되는 온유돈후한 품격의 시이다.

이 외에도 사재 선생은 여러 시에서 ‘근면’을 강조했다는데, 정지운이 성균관으로 유학을 떠날 때도 아래와 같이 근면을 강조하는 시를 지어주었다.

孔子의 가르침은 持敬 외엔 듣지 못했고
韓愈는 근면해야 학문에 정통한다고 했네.⁴²⁾
冉雍은 공경에 있으면서 간략함을 행하였고⁴³⁾
禹임금은 촌음을 아껴 공을 세울 수 있었다네.

40) 『思齋集』 권1, 詩, 「書示書堂諸子」.

41) 『論語』 「陽貨」, “詩, 可以興, 可以觀, 可以群, 可以怨.”

42) 韓愈의 「進學解」에 “학업은 부지런한 데서 정밀해지고, 노는 데서 황폐해진다.[業精于勤, 荒于嬉.]”고 하였다(『古文眞寶』 後集 권3, 「進學解」).

43) 『論語』 「雍也」에, 冉雍(仲弓)이 “자신이 공경에 처해 있으면서 간략함을 행하여 백성을 대한다면 가하지 않겠습니까. 자신이 간략함에 처하고 다시 간략함을 행한다면 너무 간략한 것이 아니겠습니까.[居敬而行簡, 以臨其民, 不亦可乎? 居簡而行簡, 無乃大簡乎?]”라고 한 말을 가리킨다. 程子の 注에 “敬에 처하면 심중에 아무런 일이 없으므로 행하는 바가 저절로 간략해진다. 그러나 간략함에 처하면 먼저 간략함에 마음이 있어 簡자 하나가 많게 된다. 그러므로 너무 간략하다고 말한 것이다.[居敬則心中無物, 故所行自簡. 居簡則先有心於簡, 而多一簡字矣. 故曰太簡.]”라고 하였다.

거만함은 반드시 몸을 망쳐 후회하게 하고
 게으름은 뜻을 무너뜨리고도 끝이 없다네.
 그대에게 주노니 내 말을 귀찮게 여기지 말고
 종신토록 敬謹 두 글자를 마음속에 두게나.
 孔訓未聞持敬外, 韓言精業以勤通.
 雍居恭敬方行簡, 禹惜光陰得做功.
 傲必敗身知有悔, 惰應隳志却無終.
 贈君不用繁吾舌, 沒世留心二字中.⁴⁴⁾

이제 성균관에서 공부하게 되었으니, 더욱더 공경스런 자세로 촌음을 아껴 부지런히 학문을 닦아야 한다는 것이다. 공자·한유·우임금의 가르침과 언행을 언급한 儒家 指向의인 작품으로, 점잖고 우아한 느낌을 주는 전아한 품격의 시이다.⁴⁵⁾ 앞에서 보았듯이, 이 전아한 품격은 온유둔후한 품격에 포함된다.

수련의 “持敬”은 공경하는 마음을 항상 지니고 지켜나가는 것을 이르는데, 이는 성리학자들이 행하던 공부이다. 수련과 함련에서는 孔子와 唐宋八大家의 한 사람인 韓愈, 공자의 제자인 염옹, 우임금 등의 가르침과 행동을 예로 들어 제자에게 공경과 근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근면해야 학업에 정통하고 공을 세울 수 있으며, 공경하는 마음이 있어야 복잡하지 않은 간략한 행동으로 사람을 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경련에서는 거만하면 반드시 몸도 망치고 후회하게 되며, 게으르면 학문하려는 뜻까지 무너져 그 폐해가 끝이 없다고 경계했다. 미련에서는 권유하는 말을 귀찮게 여기지 말고 ‘죽을 때까지 공경과 근면을 가슴에 새겨두라’며 간곡하게 당부하고 있다. 제자가 학문에 정통하고 持敬하기를 바라는 스승의 간절한 마음이 잘 드러나 있는 구절이다.

이로부터 며칠 뒤, 정지운이 앞의 시에서 강조한 공경과 근면을 소홀히 할까 염려하여, 사재 선생은 다시 아래와 같은 시를 지어 부쳤다. 그리고 서당 제자들에게도 이 시를 보여주었다.⁴⁶⁾

44) 『思齋集』 권1, 詩, 「鄭之雲將游學穎宮求一言, 取敬勤二字, 走筆書贈。」

45) 劉勰, 『文心雕龍』, 「體性」에서 “典雅는 경전에서 법을 취해 이를 모범으로 삼아 유가를 지향하는 작풍[典雅者, 鎔式經誥, 方軌儒門者也.]”이라고 하였다.

46) 『思齋集』 권1, 詩, 「前詩勸戒盡矣, 恐爲葛狗置而不省. 更衍作近詩一首, 書寄鄭之雲, 兼示書堂諸

용과 돼지는 애초에 구별이 없었는데
 복과 재앙은 본래 자기로부터 나뉘다네.
 맘이 태만해질 땐 물 빠진 사람 구하듯 고치고
 뜻이 게을러질 땐 불을 끄듯이 없애야 한다네.
 한 몸에 후회가 적은 것은 持敬에서 말미암고
 어떤 일이든 이루는 건 근면에 달렸을 뿐이라네.
 다시 지경과 근면 두 가지 말을 부치노니
 그대에게 버려져 쓸모없는 말이 될까 두렵구나.
 龍猪猶是初無別, 禍福元來自己分.
 心欲慢時援似溺, 意當慵處救如焚.
 一身寡悔由持敬, 萬事求成只在勤.
 更把兩言聊寄贈. 恐爲菟狗棄於君.⁴⁷⁾

수련의 “용과 돼지”는 훌륭한 사람과 못난 사람을 비유하는 말이고,⁴⁸⁾ “복 받고 재앙 만남은 자기로부터 나뉜다.”는 말은 자신의 근면 여하에 따라 훌륭한 사람이 되거나 못난 사람이 된다는 뜻이다. 따라서 훌륭한 사람과 못난 사람은 애초에 구별이 없었는데, 부지런히 공부한 사람은 훌륭한 사람이 되고 그렇지 않으면 못난 사람이 된다는 것이다.

함련에서는 “물 빠진 사람 구하듯”과 “불을 끄듯이”라는 적절한 표현으로 마음과 뜻이 게을러지면 시급히 고쳐야 함을 강조했다. 경련에서는 持敬을 해야 후회가 적고 어떤 일이든 근면해야 이룰 수 있다고 경계했다. 미련에서는 “그대에게 버려져 쓸모 없는 말이 될까 두렵구나.”라는 부드럽고 간곡한 어조로 재차 지경과 근면을 명심하기를 권유하며 시를 마무리했다.

앞서 초학자들에게 지어주었던 평이하고 짧은 칠언절구의 시와는 달리, 위 두 시는

子。」

47) 『思齋集』 권1, 詩, 「前詩勸戒盡矣 ……」 사재 선생이 50세 때(1534) 26세인 정지운에게 지어준 시이다.

48) 唐나라 韓愈는 「符讀書城南」詩에서, 배운 사람과 배우지 못한 사람이 서로 달라지는 과정을 설명하기를, 두 집에서 각각 아들을 낳으면 어린 아이 때는 거의 똑같지만 점점 자라면서 차이가 드러나다가, “서른 살에는 골격이 이루어져/ 마침내 하나는 용이 되고 하나는 돼지가 된다네.〔三十骨骸成, 乃一龍一猪.〕”라고 하였다(『古文眞寶』前集 제1권, 勸學文, 「符讀書城南」).

길이 배가 되는 칠언율시에 典故를 쓰고 持敬이라는 성리학 용어까지 구사하였다. 제자의 학문 수준에 따라 시를 지은 것이다. 또한 한 제자에게 시로 두 번 씩이나 공경과 근면을 권면하고, 이 시를 서당의 제자들에게도 보여 권면한 것은 제자들을 아끼는 마음이 지극했기 때문이다.

한편 사재 선생은 다른 시에서 “또한 이 시로써 제자들이 가르침을 구하기를 기다린다.[亦以待夫諸子扣]”⁴⁹⁾라고 하였고, 위 시의 제목에서도 “아울러 시를 서당의 제자들에게 보여주다.[兼示書堂諸子]”라고 하였다. 이는 학문을 권면할 때 많은 말보다 시가 더 효과적이라는 표현에 다름 아니다. 그 까닭은 말로 전할 수 있는 것을 굳이 시로 보여주었기 때문이다.

사재 선생은 앞의 세 시 외에도 정지운에게 권면시를 두 수나 더 지어주었다.⁵⁰⁾ 그리고 ‘靜而’라는 字를 지어주면서 「鄭之雲字說」⁵¹⁾이란 글까지 써주었다. 제자에 대한 깊은 애정과 자상한 스승의 모습이다. 심지어 정지운의 제자인 安鴻(1517~1582)이 19세에 과거에 급제했을 때도, 사재 선생은 다음과 같은 시를 지어 보냈다.

강하의 黃童⁵²⁾처럼 빼어난 인물이 되어
하늘 밖을 바라보니 광활하고 고원하구나.
남쪽의 큰 물고기가 봉새로 변해 처음 날개 달았고
북쪽의 천리마가 비로소 만 리의 다리를 건너가누나.
위험한 곳을 날아갈 땐 떨어질듯이 두려워하고
사통팔달 거리를 달릴 땐 교만하지 말아야 하네.
날개가 꺾이고 발굽 삐끗함은 항상 있는 일이니
이런 일 있어도 초연한 마음으로 지내야 한다네.
江夏黃童拔俗標, 回瞻天表豁雲霄.
南鯤始化雙肩翼, 北驥初過萬里橋.
飛向危虛如欲墮, 馳臨康坦亦無驕.
翅垂蹄蹶尋常有, 坐是當時放意超.⁵³⁾

49) 『思齋集』 권1, 詩, 「吾妹家壻柳君用諶而信 ……」.

50) 『思齋集』 권2, 詩, 「又書寄寓讀兩生(鄭之雲·朴衡)」; 같은 책, 「寄贈鄭·朴二子」.

51) 『思齋集』 권3, 說, 「鄭之雲字說」.

52) 黃童: 後漢 때의 사람으로 이름은 쯤이고 자는 文彊이다. 어릴 적부터 효성으로 이름났고 경전에 박학하여 ‘천하에 둘도 없는 강하의 황동[天下無雙江夏黃童]’으로 일컬어졌다.

수련과 함련에서는 안홍이 이제 과거에 급제하여 전도가 양양하며, 벼슬길에 올라 재주를 맘껏 펼치게 될 상황을 봉새와 천리마에 비유하여 칭찬하였다. 경련과 미련에서는 위협에 빠질까 두려워하고 잘나갈 때 교만하지 말 것이며, 늘 있는 실수는 초연하게 극복할 것을 권유했다.

19세의 과거 합격은 현재의 고등학생이 행정고시와 사법고시에 합격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른 나이에 합격한 사람은 자신도 모르게 세상을 알아보거나 교만해질 수가 있고, 이로 인해 낭패를 볼 수가 있다. 때문에 사재 선생은 안홍이 일찍 과거에 급제한 것을 칭찬하면서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처신하고 교만하게 행동하지 말도록 경계한 것이다.

두련과 함련의 詩語는 시야가 광활하고 구도가 광대하고 움직임이 커서 雄渾한 필치가 느껴지는데, 이는 한창 고양되어 두려울 것 없는 안홍의 마음을 잘 비유한 구절이기도 하다. 再傳弟子에게도 애정을 갖고 시로써 경계하는 자상한 스승의 면모가 잘 드러나 있는 시이다.

한편 퇴계 선생은 정지운이 세상을 떠났을 때 그의 죽음을 애도하며 墓碣銘을 지었다. 그는 이 묘갈명에서 정지운이 망동리에 사는 사재 선생을 찾아가 성리학을 배웠고 그 문하에서 여러 해를 수학하여 자주 칭찬을 받았으며, 사재 선생을 위해 心喪 3년을 행했다는 사실을 소개했다. 그리고 스승을 저버리지 않은 훌륭한 제자라고 칭송하고, 사재 선생을 ‘덕 있는 이’로 일컫고 정지운이 그 뜻을 이어 배운 것을 넓혔다고 하였다.⁵⁴⁾ 한마디로 훌륭한 스승에 훌륭한 제자라는 것이다.

망동리의 제자 유용심이 다시 아내를 맞이하려고 영남으로 떠날 때, 사재 선생은 그에게 7언 80구의 긴 시를 지어주었다.⁵⁵⁾ 이 시는 제자에 대한 여러 가지 권면 내용은 물론, 사재 선생의 세계관·문학관·치세 등을 엿볼 수 있는 주목할 만한

53) 『思齋集』 권2, 詩, 「書贈安先達鴻十九登第」

54) 『退溪集』 제46권 墓碣誌銘, 「秋巒居士鄭君墓碣銘」并序: “君自少挺質不凡. 嚶嚶然有願學之志, 會思齋金先生退居于縣之芒洞. 君往從之遊, 有味於性理之說, 以聖賢之言爲必可信, 而不桀於世俗之陋習, 在門多年, 先生亟稱許焉. …… 及思齋歿, 又爲之心喪三年. …… 銘曰 …… 有師無負, 吾見於君. 若喪其喪, 終身云云. 生稟之異. 有德之薰. 式揭其志, 式廓其聞.”

55) 『思齋集』 권1, 詩, 「吾妹家壻柳君用諶而信. 嘗與鄭之雲·朴衡, 來寓芒洞之書堂, 攻業最久. 喪其室, 又將遠娶于嶺南, 將行, 作述志賦留贈我, 仍求報一言以警. 乃作散文, 用柳韻絕句押之, 以寓久別之懷.」

역작이다. 다음은 그 중의 일부이다.

성리학이 우리들에게 재앙이 되고부터
 世儒들이 보면 모두 등 돌려 달아나고
 性理書を 끼고 있는 사람을 보면
 입이 닳도록 온갖 비방을 하며 떠든다네.
 부형들이 가르치고 경계함이 여기에 있지만
 태연히 개의치 않으면 오히려 익숙해지리.
 自從理學禍吾人, 世儒聞之皆背走,
 見人有挾性理書, 百謗爭譁不容口,
 父兄教戒亦在此, 恬然不怪猶習狃.⁵⁶⁾

기묘사화가 일어난 뒤로 성리학자들이 배척받는 정황이 현장감 있게 잘 묘사되어 있다. 1구의 “성리학이 우리들에게 재앙이 되고부터”는 바로 기묘사화를 가리킨다. 주지하듯이 기묘사화는 성리학에 바탕을 둔 이상 정치를 주장하던 신진사림파가 훈구파에 의해 화를 입은 사건이다. 사재 선생도 기묘사화에 연루되어 파직되었으니, 성리학자로서 주위의 따가운 시선을 많이 느꼈을 것이다. 때문에 자신에게 배운 제자가 혹 피해를 볼까 걱정되어 ‘온갖 비방에 개의치 말고 태연히 지내라’고 완곡하게 당부한 것이다.

아래도 같은 시의 일부이다.

문장의 聲病 따지며 다투어 아름답게 꾸미지만
 근원이 없이 오래 흐르는 물을 보지 못했다네.
 자네가 영남에 가면 우선 막역한 벗을 구해
 밤낮으로 서로 옳은지 그른지를 토론하게나.
 학문은 의당 체득하는 공부를 해야 하고
 부박한 풍속 바로잡기를 생각해야 한다네.
 文章聲病競綵繪, 未見無源水能久.
 子去先求莫逆友, 日夜討論相可否.

56) 『思齋集』 권1, 詩, 「吾妹家壻柳君用諶而信 ……」

學問宜着體認功，念此浮俗思矯揉.⁵⁷⁾

1구의 “聾病”은 詩를 짓는 데 따르는 平仄과 聲調의 병폐를 이른다. 2구의 “근원”은 “道는 文의 本이고 文은 道의 末이다.”⁵⁸⁾라는 말이 있듯이 문장의 근본인 ‘道(도덕, 도리)’를 가리킨다. 따라서 1·2구는 ‘성명을 따져가며 문장을 아름답게 꾸미는데 힘쓰지 말고, 문장의 근본인 道를 나타내는 문장을 지어야 오래간다’는 뜻이다. 그런데 이 뜻을 “근원이 없이 오래 흐르는 물을 보지 못했다네.”라는 완곡한 표현으로 권유한 것이다. 다시 말해 겉모습만 화려하게 꾸민 문장보다 진실이 담긴 문장을 지으라는 완곡한 권면이다.

3·4구에서는 어떤 문제에 대해 옳은지 그른지를 밤낮없이 토론할 것을 권하고 있다. 토론을 해야 옳고 분명한 지식을 얻게 되고 정당성을 확보하여 편견이나 선입견을 극복할 수 있다는 사재 선생의 뜻을 엿볼 수 있다. 5·6구에서는 먼저 학문을 체득하는 공부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학령 24조에서 보았듯이, 몸으로 체득하는 공부를 해야 실천에 옮길 수 있기 때문이다. 그 다음 연마한 학문으로 부박한 풍속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했다. 세상을 바로잡기 위해 학문을 해야 한다는 관점이다.

실력을 닦아 진실이 담긴 문장을 짓고, 토론을 통하여 바른 지식을 쌓을 것이며, 체득하는 공부를 해서 세상을 바로잡는 데 써야 한다고 제자에게 차근차근 완곡하게 당부하는 자상한 모습을 느낄 수 있는 시이다. 꾸밈이 없고 담박하고 평이하며 온유둔후한 느낌을 주는 작품이다.

아래도 역시 같은 시의 일부로, 항상 ‘공정한 마음’을 유지하기를 권면한 대목이다.

항상 虞書의 警戒를 가지고 危微를 살피고
날마다 殷盤에 목욕하여 때를 없애야 하네.
터럭 끝 같은 위미의 차이를 살피지 않으면
外物이 갑자기 들어와 마음을 어지럽히리라.
처음엔 形氣를 따라 길을 빌려 들어오지만
마침내는 마음이 외물에 유혹을 당한다네.

57) 『思齋集』 권1, 詩, 「吾妹家壻柳君用謹而信 ……」

58) 『栗谷全書拾遺』 권6, 雜著 三, 「文策」, “竊謂道之顯者, 謂之文. 道者, 文之本也. 文者, 道之末也. 得其本而未在其中者, 聖賢之文也. 事其末而不業乎本者, 俗儒之文也.”

東西로 내달려 마음을 거둘 수가 없으면
 鼻의 힘으로도 수갑을 풀기가 어렵다네.
 每將虞戒察危微，日浴殷盤以去垢。
 微危不察秋毫末，外物忽已來紛糾。
 初從形氣假途入，畢竟天君爲所誘。
 東西奔放鮮能收，雖以鼻力難械杻。⁵⁹⁾

1구의 “虞書의警戒”은 『書經集傳』 「虞書」 「大禹謨」 15장의 “人心은 위태롭고 道心은 은미하니, 오직 정밀하게 살피고 오직 한결같이 지켜야, 진실로 그 中道를 잡을 수 있다.[人心惟危, 道心惟微, 惟精惟一, 允執厥中.]”는 말을 가리키는데, 이를 “危微十六言”으로 줄여 쓰기도 한다. 그러므로 “危微”은 人心과 道心을 가리킨다. 따라서 1구는 ‘항상 危微十六言을 염두에 두고 人心과 道心을 살피라’는 뜻이니, 즉 ‘마음이 사사로운 人心을 따르는지 공정한 道心을 따르는지를 살펴, 道心이 한 몸의 주체가 되게 하라’는 것이다.⁶⁰⁾

2구의 “殷盤”은 『大學章句』 傳 2장에 보이는 ‘殷나라 湯王이 목욕하던 그릇[盤]’을 가리킨다. 탕왕은 그 그릇에 “진실로 어느 날에 새로워졌거든 나날이 새롭게 하고 또 날로 새롭게 하라.[苟日新, 日日新, 又日新.]”는 글을 새겨, 몸을 씻어 때를 없애듯 마음의 더러운 것도 날마다 씻어서 새로워져야 한다고 스스로 경계했다고 한다. 그러므로 2구는 ‘날마다 마음의 더러운 것을 씻어서 새롭게 해야 된다’는 뜻이다.

3·4구는 가을 털끝만한 차이의 人心과 道心을 정밀하게 살피지 않으면 마음이 天理를 벗어나 人欲을 따르게 되므로, 외물이 갑자기 들어와 마음을 어지럽힌다는 것이며, 5·6구는 처음에는 외물이 形氣(形質과 氣運)를 따라 들어오지만, 마침내는 마음이 외물에 유혹을 당하게 된다고 하였다. 7·8구에서는 외물에 마음이 유혹 당한 뒤에 이쪽저쪽의 외물로 마음이 내달리게 되면, 鼻(오)의 힘으로도 막을 수 없는 위태로운 지경에 이른다고 경고하면서 마무리했다. 鼻는 古代에 육지에서 배를 끌고 다닐 정도로 힘이 세었다는 壯士이다.

경전에 근거하여 먼저 항상 공정한 마음을 유지하고 날마다 마음을 깨끗이 할

59) 『思齋集』 권1, 詩, 「吾妹家壻柳君用謹而信 ……」

60) 人心과 道心에 대해서는 『書經集傳』 「虞書」 「大禹謨」 15장의 集傳; 朱子の 「中庸章句序」; 程敏政의 『心經附註』 「人心道心章」을 참조.

것을 권유한 다음, 다시 물욕이 점차 심해져 결국 파국에 이르는 결말까지 제시하여, 제자가 반드시 공정한 마음을 유지하길 바라는 간절한 뜻이 녹아있는 시이다. 역시 유가 지향적인 내용으로 일관한 전아한 필치가 느껴지는 시이다. 앞서 Ⅱ장의 학문관에서 다룬 「次朴衡韻」시보다 훨씬 더 구체적으로 마음을 수양하는 공부를 강조하였는데, 이는 사재 선생이 성리학자로서 마음을 수양하는 공부에 치중했음을 잘 말해준다.

이상에서 망동리 제자에 대한 권면시를 검토한 결과, 사재 선생은 제자의 수준에 맞는 권면시를 지어주고 시의 효용성을 중시했으며, 온유둔후하고 전아하고 옹혼한 필치가 느껴지는 시를 통해, 간곡하게 때로는 완곡하면서도 설득력 있게 제자를 권면하는 자상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권면한 내용은 독송, 근면, 공정, 토론, 성리학 적 사고에 입각한 바른 마음 유지 등이다. 아울러 제자들이 잘되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과 정지운에 대한 각별한 애정도 살필 수 있었다.

IV. 맺음말

지금까지 사재 선생의 학문 권면시에 나타난 학문관과 자상한 스승의 면모를 살펴 보았다. 사재 선생은 열심히 학문을 닦아 장원급제하여 벼슬길에 올라 조정에서 王政을 보필하였다. 그 뒤 황해도 관찰사로 나가 善政을 베푸는 중에도 교육을 중시하여 직접 교생을 뽑아 가르치고, 학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詩教에 입각한 온유둔후한 권면시로써 교생들을 도탑게 면려했다. 그의 학문관이 말해주듯 짐승이 아닌 인간다운 인간을 만들고 훌륭한 인재를 길러 좋은 사회와 나라를 이루려는 큰 뜻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 후 망동리에 은거할 때부터 전라 감사로 나가기 전까지, 그는 18년 동안 제자들을 열성을 다해 가르쳤다. 이때도 그는 시의 효용성을 중시하여 온유둔후하고 전아한 권면시로 제자들을 권면했다. 그 권면시에는 제자들이 훌륭한 사람이 되길 바라는 간절한 마음과, 정성을 다해 도탑게 학문을 권면하는 자상한 스승의 면모가 고스란히 담겨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처럼 정성을 다해 자상하게 제자들을 가르쳤기에, 퇴계 선생도 정지운을 훌륭한 제자로 일컬으면서 사재 선생을 덕이 있는 훌륭한

스승으로 칭송했던 것이다.

孟子는 “배부르게 먹고 따뜻하게 입고 편히 살면서 가르침이 없으면 짐승에 가까우므로, 성인이 이를 걱정하여 인륜을 가르치게 하였다.”라고 말하였다. 사재 선생도 우매한 백성을 걱정하여 이들을 깨우치고자 『경민편』을 지었고, 학문을 권면하여 훌륭한 사람을 만들고자 學승을 만들어 校生을 면려하고 또 시를 지어 교생과 제자들을 도탑고 자상하게 권면했다.

孔子는 “배움은 따라가지 못할 듯이 하면서도 행여 때를 놓칠까 두려워해야 한다.”라고 하여, 제때에 열심히 배우고 부지런히 노력해야 한다고 했다. 사재 선생도 “공자의 가르침은 持敬 외엔 듣지 못했다.”고 하면서 학생들에게 공경과 근면을 자주 강조했다. 그리고 자신도 지경의 자세로 부지런히 王政을 보필하고 백성들에게 선정을 베풀고 교생과 제자들을 권면했다. 그 뒤 전라도·경상도 관찰사로 부임하여 부지런히 선정을 베풀다가 폐결핵에 걸려 사직하고 돌아와서는 1년 만에 서거하였다. 자신이 강조한 대로 체득한 학문을 종신토록 실천한 것이다. 그러므로 사후에 행실이 점잖고 어질며 덕과 학식이 높은 ‘군자다운 사람’으로 칭송을 받았던 것이다.

필자가 사재 선생 이전의 문인들이 남긴 文集을 대략 살펴본 결과, 학문을 권면한 勸學詩를 거의 발견할 수가 없었다. 다만 사재 선생이 권학시를 짓기 2년 전인 1517년 그의 형 慕齋 金安國이 경상도 관찰사로 있을 때 각 고을의 校生을 권면하기 위해 지은 69首의 권학시를 찾을 수 있었다. 그런데 사재 선생의 다양한 내용의 권학시와는 달리, 모재 선생의 권학시는 대부분 『小學』을 열심히 공부하여 행실을 닦으라는 내용이었다. 그 후 退溪 李滉도 대략 17수 정도의 권학시를 지었고, 高峯 奇大升(1527~1572)도 5수의 권학시를 남겼는데, 이들의 권학시에 비하면 사재 선생의 권학시는 양이 훨씬 많고 내용도 다양하다. 따라서 사재 선생의 권학시는 우리 문학사에서 보기 드문 사례인 만큼, 문학사적으로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다고 하겠다. 또한 退溪와 高峯은 鄭之雲의 『天命圖說』로 사재 선생과 연결되므로, 사재 선생의 권학시는 어느 정도 퇴계와 고봉의 권학시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한 연구는 후일의 과제로 남겨둔다.

투고일: 2021.01.28

심사일: 2021.02.28

게재확정일: 2021.03.19

참고문헌

- 金正國, 『思齋集』, 한국문집총간23
金正國 저, 김병헌 외 역, 『국역 사재집』, 아담앤달리, 2016
成 倪, 『虛白堂集』, 한국문집총간14
李 滉, 『退溪集』, 한국문집총간29~31
李 珣, 『栗谷全書拾遺』, 한국문집총간44~45
成百曉 譯註, 『譯註 古文眞寶 前集』, 傳統文化研究會, 2001
成百曉 譯註, 『譯註 古文眞寶 後集』, 傳統文化研究會, 2001
이민홍, 『朝鮮朝 詩歌의 理念과 美意識』, 성균관대 출판부, 2000
정요일, 『한문학비평론』, 집문당, 1994
하정승, 『고려조 한시의 품격 연구』, 도서출판 다운샘, 2002

성당제, 「思齋 金正國 詩의 美意識」, 『東國史學』 제63집, 동국역사문화연구소, 2017
최재남, 「金正國의 삶과 시세계」, 『한국한시작가연구』 4, 한국한시학회, 1999

『朝鮮王朝實錄』, 국사편찬위원회, 온라인 서비스 사이트
『論語』, 『大學章句』, 『書經集傳』, 『禮記』, 『孝經大義』, 『小學』, 『心經附註』, 『文心雕龍』

The view of Learning and the aspects of a caring enough and utmost sincerity teacher in the poem of Sajae' Kim Jeong-guk

Sung, Dang-je

This thesis focuses on the fact that Sajae' kim Jeong-Guk was an excellent teacher who played a part in nurturing a junior scholar in the early Joseon Dynasty, and examined his academic view and the aspects of a caring teacher.

Sajae is a competent bureaucratic literary man who helped the king's politics and carried out good politics to the people in the Period of King Jungjong of the Choson Dynasty. When he was an Hwanghae-do provincial governor, he devoted a high passion to education and choose dozens of students and taught them myself and he encouraged Confucian students to study according the school rules made by him and encouraged his Hyang-gyo students to study through poetry. It was because there was a high intention to create a good society and a great country by creating great talent. After that, when he retired in Mangdong-ri, Goyang-gun, he enjoyed teaching only his disciples for 18 years. Even at this time, he taught his disciples with all his heart, and he encouraged several disciples to study through poetry, focusing on the utility of poetry.

Therefore, in this paper, we analyzed the poems written by Sajae to encourage Hyang-gyo students and his pupils to study, and examined the aspects of a caring enough and utmost sincerity teacher along with the academic view and aesthetic characteristics of the poem.

Key Words : Kim Jeong-guk, Mangdong-ri, yug mudang, teacher, Hyang-gyo students, disciples